

지역분류	미주 / 미국
보도일/기관명	2017. 3. 2.(목) / FierceWireless
제 목	구글은 Airtel, SKT 등에게 SDN 기술 제공
출처(URL)	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tech/google-lending-sdn-expertise-to-airtel-sk-telecom

【 개 요 】

- 구글은 인도 최대의 무선통신사업체인 Bharti Airtel과 한국의 SKT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

【 주요내용 】

- 전 세계의 사업자들이 SDN(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)과 NFV(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인프라) 기술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으며, 구글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라고 볼 수 있음

※ SDN(Software Defined Networks) : 네트워크의 트래픽 전달 동작을 소프트웨어 기반 컨트롤러에서 제어/관리하는 방식

※ NFV(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) : 통신망 구성과 제어/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가상화하여 이용하는 기술로, 이기종 하드웨어 장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장비가 가진 한계를 서버, 스토리지 및 스위치 등 IT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

- “구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던 이 플랫폼은 협력사들이 강력한 블록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며,
- 우리의 SDN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가 새로운 서비스와 트래픽 패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, 상용 하드웨어에서 빠른 공간 패킷 처리는 비용 절감과 함께 신규 기능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”라고 구글의 수석엔지니어인 Ankur Jain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언급함
- 또한 이 플랫폼은 또한 풍부한 API를 기반으로 이동통신사들과 공동 실험을 위한 구글의 기존 노력들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,

※ API(Application Program Interface) :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함수들의 집합체

- 이러한 API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자가 ‘스마트 오프라인’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언급함

※ 스마트 오프라인 : '14년부터 제공되는 유튜브 서비스로 사용자 지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장소 및 회선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

- 아울러 이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이통사와의 협력 외에도 구글은 설계 및 운용 경험 등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CORD(Central Office Re-architected as a Data Center)를 통해 제공함
- SKT의 CTO인 Alex Choi는 “구글이 보유한 SDN 및 NFV에 대한 전문성이 이동통신사의 생태계에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협력을 통해 5G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사용 경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고 언급함
- Bharti Airtel의 무선분야 CTO인 Shyam Mardikar는 “구글이 네트워크 기술의 제공은 대단한 일임을 강조하며 모바일 네트워크에 더 높은 효율성과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고 언급함

- o 지난 7월, Open Networking Lab(ON.Lab)과 The Linux Foundation이 신규의 독립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함께 CO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함
 - 구글, Radisys 및 삼성전자는 CORD와 ONOS 프로젝트의 신규 파트너로 합류
 - 구글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의 Sunnyvale Tech Corner Campus에서 CORD 구축 및 사용에 관심이 있는 업계 선두 업체, 네트워크 설계자 및 관리자, 개발자 및 엔지니어 모집을 위해 CORD Summit을 개최함
- o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7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Sprint 임원은 가상화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, 서두를 것 없다는 대답을 하였음
 - Sprint의 COO(Chief Operating Officer; 최고업무집행책임자)인 Gunther Ottendorfer는 “가상화는 Sprint 네트워크의 주요분야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 많은 얘기가 될 것이며, 기존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빅뱅은 없을 것”이라고 밝힘

[↑ 목차로 이동](#)